
2026년 1분기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kcprice.or.kr



Contents

목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감시리포트

1분기 | 202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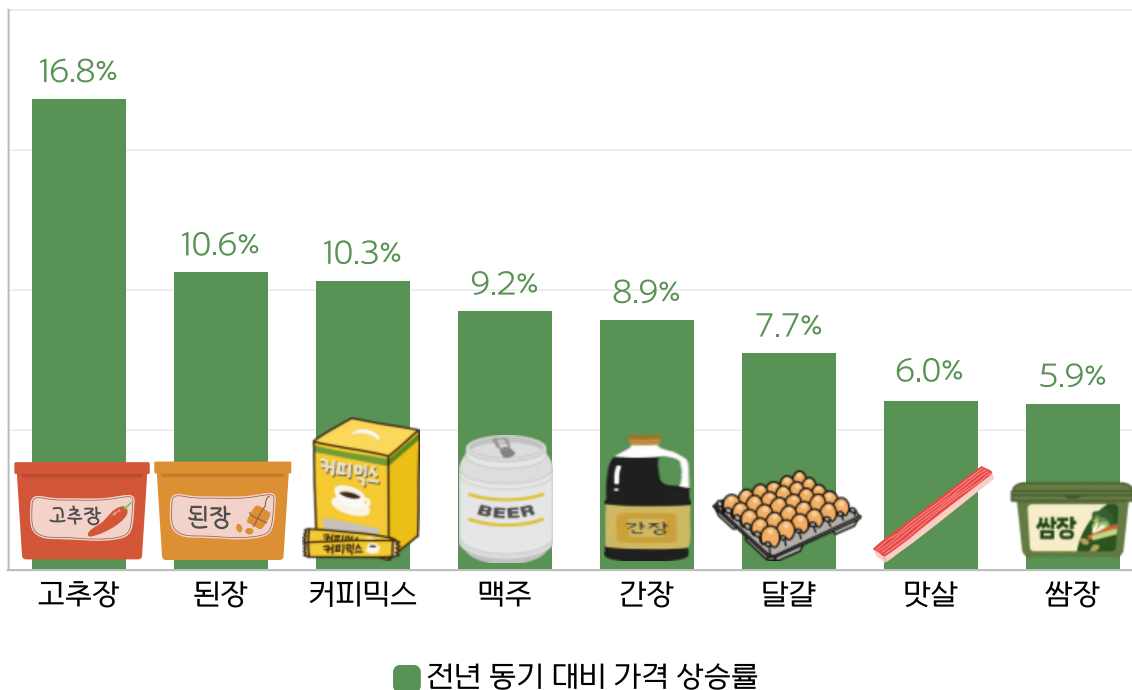
- 0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 02 2026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
- 03 닭고기 가격 추이
- 04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1 26년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3% 상승, 38개 중 26개 품목 가격 올라

- 고추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상승세로 '최고 상승률' 기록

<그림 1-1.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8개 품목>



본 협의회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조사한 생활필수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락률 비교가 가능한 38개 중 26개 품목 가격이 일제히 올랐으며, 상승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4%였다. 특히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1%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고추장(16.8%)이 가장 높았으며, 된장(10.6%), 커피믹스(10.3%), 맥주(9.2%), 간장(8.9%) 순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상승률 상위 품목 중 4개가 장류로 나타나, 장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류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5년 12월 말 종료된 '장류 부가세 면세 혜택'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고추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균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16,029원에서 18,716원으로 16.8% 상승하며, 조사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2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평균 상승률 11.5%로 높아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은 10개 제품의 평균 상승률은 11.5%로 나타났다. 상위 7개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10%를 초과하며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제품은 전년 동기보다 20.1% 급등하며, 전체 조사 대상 중 가장 상승폭이 큰 품목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의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13.7%,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이 11.1%, CJ제일제당의 ‘해찬들 맛있는 재래식 된장’ 10.1%, 샘표식품의 ‘진간장 금F3’ 9.3%, ‘양조간장 501’ 8.4%로 장류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졌다.

장류를 제외한 품목 중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1.6%,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가 9.2%로 커피믹스 제품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커피믹스는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가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가 없어 소비자는 정확한 인상 요인이나 유통 단계별 인상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1.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제조회사	제품명	상승률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20.1%
대상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13.7%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1.6%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11.1%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11.1%
CJ제일제당	해찬들 맛있는 재래식 된장	10.1%
오비맥주	Cass 후레쉬	10.1%
샘표식품	진간장 금F3	9.3%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9.2%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8.4%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3 전분기 대비 상승률 1위 7.9%의 간장, 상위 5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장류로 나타나

25년 4분기 대비 26년 1분기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평균 0.3% 상승으로 보합세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조사 대상 39개 중 21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0%였다. 반면 17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그림 1-2. 25년 4분기 대비 26년 1분기 상승률 상위 5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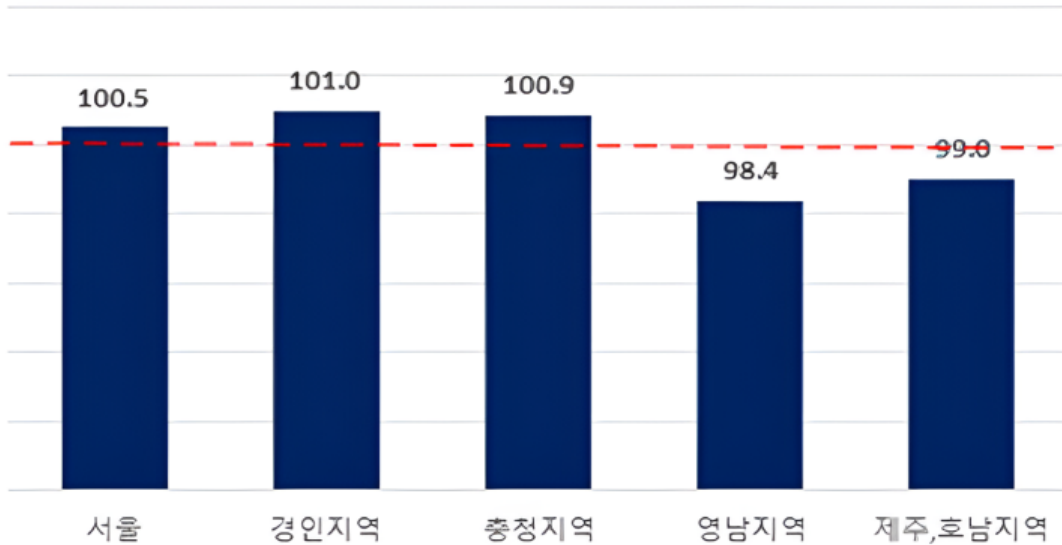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간장(7.9%), 쌈장(7.1%), 고추장(6.6%), 된장(6.4%), 맛김(2.3%)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이 높은 품목은 두부(-5.4%), 분유(-3.9%), 우유(-3.5%), 세탁세제(-3.2%), 샴푸(-2.7%)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간장은 2026년 1분기 평균 16,340원(1.7L 기준 환산가)으로 전분기에 비해 약 1,200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중 4개를 차지한 장류는 한식의 필수 기초 식재료다. 장류 가격의 상승은 가정 및 외식 물가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생활물가 전반의 가격 변동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4 전국 11개 지역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 영남지역(부산시, 경상북도) 가장 낮아

〈 그림 1-3. 지역별 생활필수품 가격 차이〉



본 협의회는 2026년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¹⁾, 3월 지역별 생활필수품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가격 기준 보다 영남 지역(부산시, 경상북도)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가장 낮았다. 반면 경기 지역(경기도, 인천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지역별 가격 차이는 각 지역의 유통환경의 차이, 1+1, 묶음판매, 할인 행사 등과 같은 마케팅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라 용량이 큰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 단위가격이 내려가는 경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쌀장은 일부 지역에서 170g 이나 200g 용량보다 500g 용량의 제품 판매가 많아 단위가격이 낮았으며 두부 등과 같은 품목은 다양한 할인 행사로 인해 지역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 본 협의회의 생활필수품 정기 가격조사는 2026년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세종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총 11개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하여 3월까지 시범운영하였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일반슈퍼마켓 약 800여개 업체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을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5 '단위가격' 확인 습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스킬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직접적인 가격 인상의 부담이 있어 용량 감소, 용량 세분화, 묶음 판매, 1+1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인해 소비자는 직관적 가격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다.

예를들어, 맛김, 커피믹스, 두루마리 화장지 등의 제품은 동일 제품임에도 용량을 세분화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졌고, 어묵, 냉동만두 등은 묶음이나 기획상품의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가 표시된 총가격만으로 가격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다. 또한 소비자는 대용량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기대가 실제 가격 구조와 일치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소비자가 '총가격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단위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위가격제」는 소비자가 용량이나 규격이 다른 상품을 100g, 100ml, 1개당 등 통일된 단위로 가격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5 '단위가격' 확인 습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스킬

실제 단위가격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 비교를 위해 본 협회회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고추장의 3월 전국 대형마트 판매가격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표 1-2. 2026년 3월 고추장 제품의 대형마트 가격 비교〉

제품	0.5kg(A)		1kg(B)		B-A차이	
	판매가격 (중앙값)	단위가격 (100g당)	판매가격 (중앙값)	단위가격 (100g당)	판매가격 차이	단위가격 차이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14,300원	2,860원	22,660원	2,266원	8,360원	-594원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 양초 찰고추장	14,300원	2,860원	22,660원	2,266원		

고추장은 동일 제품이나 0.5kg, 1kg 등의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조사제품은 CJ제일제당의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과 대상의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이다. 이들 0.5kg 제품과 1kg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중앙값으로 보면 각각 14,300원, 22,660원으로 브랜드별 차이는 없었다. 각 제품의 용량별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0.5kg 고추장 제품보다 1kg 고추장 제품의 판매가격이 약 8,360원 더 비쌌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격 비교를 위해 단위가격을 비교해 보면 0.5kg 제품은 2,860원, 1kg 제품은 2,266원으로 1kg 고추장 제품이 0.5kg 제품보다 평균 약 20.8%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5 '단위가격' 확인 습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스킬

〈표 1-3. 2026년 3월 맛김 제품의 대형마트 가격 비교〉

제품	4.5g×12봉(54g) (A)		4g×16봉(64g) (B)		B-A차이	
	판매가격 (중양값)	단위가격 (10g당)	판매가격 (중양값)	단위가격 (10g당)	판매가격 차이	단위가격차 이
양반 좋은 원 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 김&올리브김	6,980원	1,293원	8,510원	1,330원	1,530원	37원

반면 용량을 세분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맛김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가격 중양값 기준, 총 구매 용량이 54g(4.5g×12봉) 제품은 6,980원, 64g(4g×16봉) 제품은 8,510원이었으며 단위가격(10g) 각각 1,293원과 1,330원으로 용량이 더 많은 64g 제품이 37원 더 높았다.

이처럼 용량에 따른 단위가격 차이가 뚜렷한 만큼, 고추장과 같이 보관이 용이한 필수 식재료나 기저귀, 두루마리 화장지 등의 제품을 대용량으로 구매할 경우 총 판매가뿐 아니라 단위가격을 우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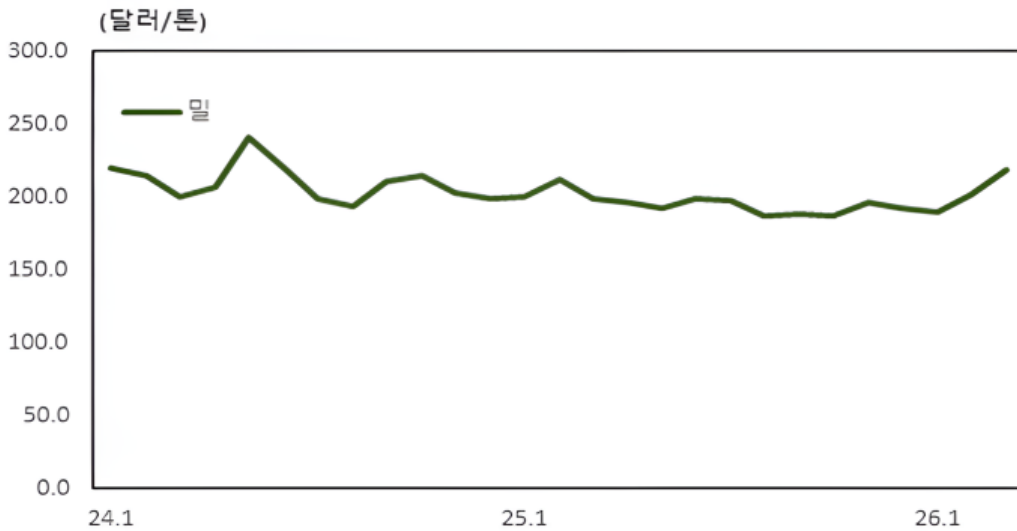
또한 단위가격의 필요성이 커지며 2026년 4월부터는 네이버스토어, G마켓,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적용 대상 품목도 기존의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단위가격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하여 숨은 물가 상승을 정확히 파악하여 저렴한 제품을 쉽게 선택, 구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2026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

2-1 2026년 1분기 기본 원재료(밀, 대두, 원당)의 가격 추이

〈그림 2-1. 2024~2026년(3월) 밀 선물가격 추이(CBO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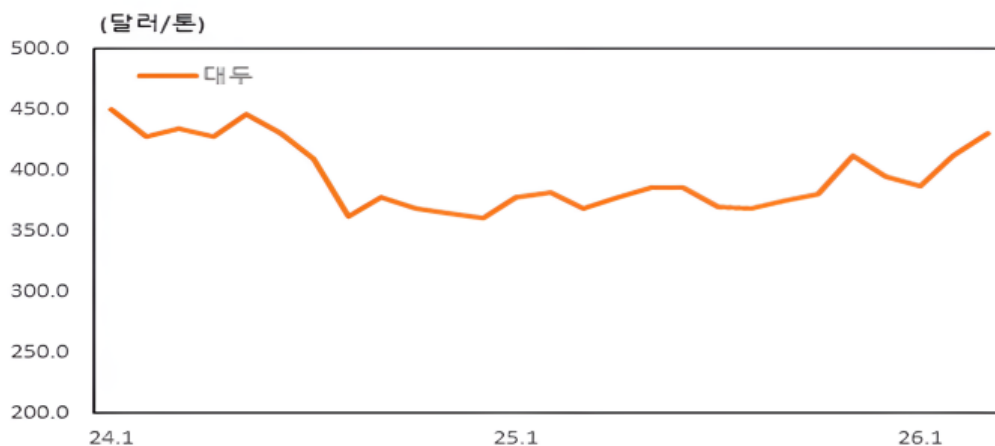
(출처: KERI 해외곡물시장정보)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2025년 기간 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6년 1분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의 가뭄, 한파에 따른 작황 부진의 우려와 흑해 지역의 긴장 고조로 수급 불안 및 물류비 상승 등의 요인이 꼽히고 있다. 이같은 국제 가격 상승분이 국내 밀 수입단가에 반영되게 되어 점차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 1분기에 밀을 주 원재료로 하는 밀가루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라는 발표와 같은 달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발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밀가루 시장 전반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있었다. 본 협의회의 밀가루 가격조사 결과, 2026년 3월 평균 2,004원(1kg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된 조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2026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

〈그림 2-2. 2024~2026년(3월) 대두 선물가격 추이(CBO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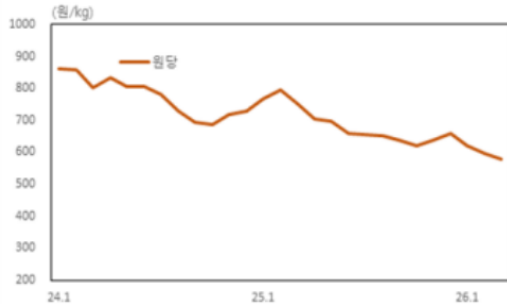


(출처: KERI 해외곡물시장정보)

대두의 2026년 1분기 국제 선물가격은 상승세로 나타났다. 2025년에 브라질 등 남미의 생산 확대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기상 문제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우려가 반영되며 2026년 1분기에 하락세가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의 원화 기준 수입 가격은 밀과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과 물류비의 영향까지 더해져 향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두를 원료로 하는 두부나 관련 가공식품인 식용유의 가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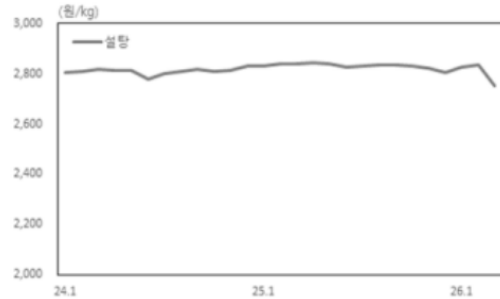
2. 2026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

〈그림 2-3. 2024~2026년(3월) 원당 국내수입단가〉



(출처: 한국무역협회)

〈그림 2-4. 2024~2026년(3월) 설탕 소비자가격〉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당은 한국무역협회 수입단가 기준으로 볼 때 2026년 3월 평균 가격은 580원(1kg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 2026년 1분기에는 하락세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 원당 선물가격은 2026년 1분기 들어 기상 변수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차를 두고 국내 수입단가에 반영될 경우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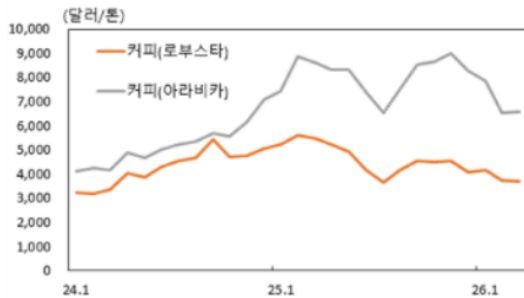
원당을 주 원재료로 하는 설탕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202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같은 달 CJ제일제당은 국제 원당 가격 인하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설탕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협회회의 조사 결과, 설탕 가격은 2026년 2월 월평균 2,837원(1kg 기준)에서 3월 2,751원으로 약 3% 수준의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표 내용과 실제 가격 인하 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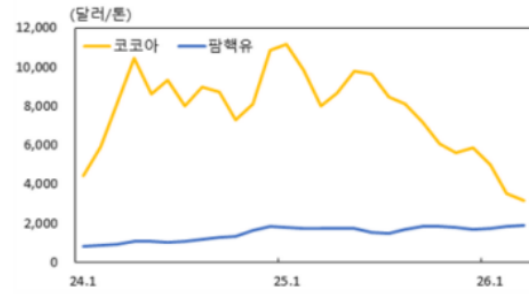
2. 2026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

2-2 2026년 1분기 디저트 품목 주요 원재료(원두, 코코아) 가격 추이

〈그림 2-5. 2024~2026년(3월)원두 선물가격 동향〉 〈그림 2-6. 2024~2026년(3월)코코아,팜핵유 선물가격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두의 국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2026년 수확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5년 낮은 생산량에 의한 기저효과가 아닌 절대적 생산량 증가로 예측, 점진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26년 2월까지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선물가격은 하락했으나, 3월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불안에 의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원두 선물가격 하향 안정 전망을 고려할 때, 2026년 국내 커피 가격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협회회의 생활필수품 조사 품목 중 커피믹스는 대표적 서민 식품 중 하나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상위 가격 상승률 품목에 늘 꼽히고 있다. 2026년에는 원두 가격 하락이 커피믹스 소비자가격에도 적절히 반영,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코코아 2025년 최고점을 기록한 코코아 선물가격은 2026년 1분기까지 하락세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2월 ICE(NYBOT) 기준 톤당 평균 3,000달러대까지 하락하여, 2024년 말 급등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초콜릿, 초코파이 등의 주 원재료 중 팜핵유는 공급 부족과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 선물가격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코아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팜핵유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초콜릿 등 가공 식품의 소비자가격의 인하 여부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닭고기 가격 추이

닭고기는 치킨이나 삼계탕 등 우리나라 국민이 애용하는 외식품목의 원재료이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2013년 11.5kg에서 2025년에는 약 15kg 정도로 추정,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 22~25마리 내외의 닭고기를 소비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애용하는 외식 품목 중 치킨 가격은 정부관리 외식 품목 가격의 기준가격이 되기도 하며, 생활물가 상승을 판단할 때도 주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그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2023년 대략 20,000원이었던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는 2025년 기준 대략 23,000원으로 2년 전보다 15.0%나 상승했다.

이에 소비자가 가장 즐겨 먹는 축산물 중 하나인 닭고기의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25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생닭(육계) 가격 상승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실제 마트에서 육계 소비자가격이 올랐다는 기사도 나왔는바, 닭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추이를 확인해보았다.

3. 닭고기 가격 추이

축산유통정보 다봄 자료에 따르면, 산지의 위탁 생계의 가격²⁾은 2025년 11월부터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었다. 2024년 1,718원으로 전년 대비 7.2% 하락, 2025년 1,678원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해 2년 연속 하락했던 산지가격이 2025년 11월부터 조금씩 올라 2026년에는 1,762원으로 전년보다 5.0%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동기간 중 큰 폭의 등락은 없었는데, 이는 산지 위탁 생계는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일정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3-1.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추이〉

연도	산지	도매	소매	산지	도매	소매
	위탁생계 (중)	(전체)		위탁생계 (중)	(전체)	
26년	1,762	3,990	6,217	5.0%	12.3%	8.2%
25년	1,678	3,554	5,748	-2.3%	14.1%	0.0%
24년	1,718	3,115	5,748	-7.2%	-15.6%	-5.7%
23년	1,851	3,691	6,093	6.7%	8.1%	7.7%
22년	1,734	3,415	5,659	17.6%	23.4%	3.6%
21년	1,475	2,768	5,462	11.3%	14.4%	6.6%
20년	1,325	2,420	5,123			

(출처: 축산유통정보 다봄)

닭고기 도매가격(전체)은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호수별 전체 평균 가격으로 분석했다. 도매가격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하락세로 나타났으나 1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올해 3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났다.

도매가격은 산지가격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커 연중 큰 폭의 가격 등락이 있었다. 2024년에는 3,115원으로 전년대비 15.6% 하락했다가, 2025년에는 3,554원으로 14.1% 상승, 2026년 3월까지도 계속 상승하여 전년보다 1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매가격은 2025년 평균 5,748원이었으나, 산지 및 도매가격과 마찬가지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2026년 평균 6,217원으로 나타났다.

2) 닭고기는 90% 이상이 위탁 생계 판매되고 있어 산지 가격은 위탁생계유통 가격으로 살펴보았다.

3. 닭고기 가격 추이

〈표3-2. 닭고기 유통단계별 평균 가격〉

유통 단계	N	평균 가격	표준편차
산지가격	63	1,693원	135.10
도매가격	63	3,337원	457.89
소매가격	63	5,756원	311.35

닭고기 유통 단계별 가격이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 3월 현재까지의 각 단계별 월평균 닭고기 가격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지가격은 도매가격 변동의 약 39.2%를 설명하고, 도매가격은 소매가격 변동의 약 4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지가격이 소매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산지에서 가격이 변하더라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에는 도매가격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닭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도매 및 유통 단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지 계약부터 도계, 가공 및 도매, 소매 유통까지 계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전 과정을 계열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각 단계별 가격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산지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시장 요인뿐 아니라 유통 단계 전반의 가격 결정 구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단계의 유통 비용, 계열화 구조 내 가격 변동이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 계열화된 유통 전반의 가격 반영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025년 서울 지역의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8,000원 수준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20,000원대에 이르기도 하였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빨라진 더위 속에 초복을 앞두고 있다. 닭고기 가격 상승이 삼계탕 등 닭고기 관련 주요 외식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닭고기 산업 전반의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4.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물가 중 하나다. 출퇴근은 물론 물류, 여행, 외식 등 다양한 소비 활동에 맞닿아 있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도 금세 커진다.

최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불과 열흘 사이 1,600원대에서 1,900원대로 빠르게 뛰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다.

이에 정부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3월 2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제외되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휘발유 가격 흐름을 살펴보고,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았다.

4.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4-1. 2월 4째 주~3월 4째 주 휘발유 가격 동향〉



(출처: 오피넷 (전체 주유소의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3월 가격 흐름을 보면, 전쟁 직후부터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 4째 주 1,691원에서 3월 1째 주 1,747원으로 오른 데 이어 3월 2째 주에는 1,902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직후인 3월 3째 주에는 1,829원으로 전주보다 3.8% 하락했고, 3월 4째 주에도 1,819원으로 소폭 더 내려갔다. 급등하던 가격이 한 차례 꺾이긴 했지만,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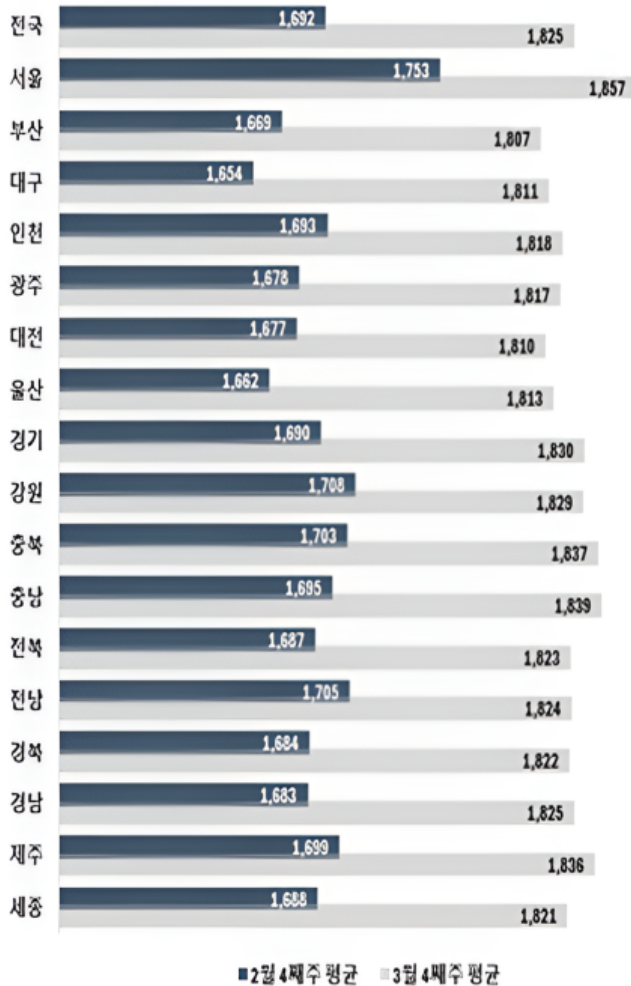
정유사 공급가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공급가는 2월 4째 주 1,616원 수준에서 3월 1째 주 1,766원, 3월 2째 주 1,770원까지 올랐다가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인 3월 3째 주 1,722원으로 낮아졌다. 3월 4째 주에는 1,730원으로 다시 소폭 올랐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공급가보다 소비자가격이 더 가파르게 뛰었다는 것이다. 3월 2째 주 기준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2월 4째 주보다 약 9.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가격은 12.4% 상승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평균 1주일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부터 한발 앞서 올라간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별 가격 변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4.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4-2. 전쟁 발발 전후 휘발유 가격 동향〉



(출처: 오피넷 (전체 주유소의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2월 4째 주 평균 1,654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3월 2째 주 1,894원으로 약 14.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대전과 울산도 같은 기간 각각 12.9%, 12.8% 올랐고, 충남, 경북 12.5%, 경남 11.9%, 전북 11.8% 상승하는 등 전 지역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최고가격제 시행된 후에는 대전이 전주 대비 4.8% 하락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대구 4.5%, 세종 3.8%, 경북 3.7%, 서울 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3월 4째 주에는 지역별로 소폭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전국 평균으로는 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상승폭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역별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급격히 오르던 가격을 잠시 진정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적용되다 보니, 소비자가 바로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공급가와 판매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유가 급등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서울, 경기 지역 중심)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등락률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과자(파이)	468g 환산	4,519	4,553	0.7%
과자(스낵)	90g	1,252	1,313	4.9%
껌	원통90g 환산	4,483	4,463	-0.5%
밀가루	1kg 환산	2,033	2,023	-0.5%
설탕	1kg 환산	2,837	2,805	-1.1%
고추장	1kg	16,029	18,716	16.8%
된장	1kg	8,231	9,101	10.6%
쌈장	170g 환산	1,656	1,753	5.9%
식용유	1.8L 환산	8,179	8,001	-2.2%
참기름	320ml	9,962	9,786	-1.8%
간장	1.7L 환산	15,009	16,340	8.9%
케찹	500g	3,455	3,485	0.9%
마요네즈	500g	6,061	6,147	1.4%
맛김	5g*9봉 환산	5,452	5,493	0.8%
라면	봉지120g	768	811	5.5%
햄	340g	6,217	6,548	5.3%
즉석밥	210g 환산	1,582	1,569	-0.8%
생수	2L	1,032	1,051	1.8%
콜라	1.5L 만	3,064	3,071	0.2%
사이다	1.5L 만	2,985	2,949	-1.2%
소주	360ml	1,483	1,490	0.5%
맥주	캔355ml	1,752	1,913	9.2%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29,283	32,298	10.3%
분유	800g	24,554	24,925	1.5%
시리얼	600g	6,216	6,409	3.1%
어묵	300g	2,719	2,707	-0.5%
맛살	300g	2,837	3,007	6.0%
달걀	1판(30개)	7,568	8,151	7.7%
두부	300g 환산	3,622	3,377	-6.8%
우유	1L	3,360	3,247	-3.4%
아이스크림	160ml	1,419	1,390	-2.1%
냉동만두	1,000g	10,028	10,326	3.0%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4,456	25,163	2.9%
기저귀	40개입	28,970	29,885	3.2%
생리대	18개입	6,548	6,590	0.6%
세탁세제	3kg만	9,472	9,686	2.3%
샴푸	500ml	8,513	8,163	-4.1%
참치캔	100g 환산	2,305	2,308	0.1%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제품별 가격변동 현황(서울, 경기 지역 중심)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등락률
과자(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468g(12개입)	4,519	4,553	0.7%
	롯데제과	몽쉘 카카오 생크림 케이크	384g(12개입)	5,456	5,659	3.7%
과자(스낵)	농심	새우깡	봉지90g	1,252	1,313	4.9%
	오리온	포카칩 오리지날	봉지66g	1,530	1,534	0.3%
껌	롯데제과	자일리톨 오리지날(껌)	원통90g	4,483	4,463	-0.5%
밀가루	CJ제일제당	백설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053	2,057	0.2%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014	1,989	-1.2%
설탕	CJ제일제당	백설 하얀설탕	1kg	2,837	2,805	-1.1%
	CJ제일제당	백설자일로스하얀설탕	1kg	5,124	5,188	1.3%
고추장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사각1kg	15,351	18,437	20.1%
	대상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사각1kg	16,706	18,995	13.7%
된장	CJ제일제당	해찬들 맛있는 재래식 된장	사각1kg	8,282	9,117	10.1%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사각1kg	8,180	9,085	11.1%
쌈장	CJ제일제당	해찬들 사계절 쌈장	170g	1,747	1,847	5.7%
	대상	청정원 순창 양념듬뿍 쌈장	200g	1,842	1,953	6.0%
식용유	CJ제일제당	백설 콩100%로 국내에서 만든 콩기름	1.8L	7,672	7,478	-2.5%
	사조해표	식용유 콩기름	1.8L	7,856	7,697	-2.0%
	오뚜기	콩100% 식용유	1.8L	9,010	8,828	-2.0%
참기름	CJ제일제당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	320ml	8,181	7,744	-5.3%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320ml	11,744	11,828	0.7%
간장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1.7L	15,066	16,334	8.4%
	샘표식품	진간장 금F3	860ml	7,564	8,269	9.3%
케첩	오뚜기	토마토 케첩	500g	3,455	3,485	0.9%
마요네즈	오뚜기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500g	6,061	6,147	1.4%
맛김	동원F&B	양반 좋은 원초에 그득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5g*9봉	5,195	5,091	-2.0%
	풀무원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	5g*9봉	5,709	5,894	3.3%
라면	농심	신라면	5개 묶음	4,153	4,325	4.1%
	삼양식품	삼양라면	5개 묶음	3,905	3,982	2.0%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5개 묶음	3,468	3,852	11.1%
햄	CJ제일제당	스팸 클래식	340g	6,217	6,548	5.3%
	롯데푸드	롯데 신선톡톡 슬라이스햄	100g	3,482	3,661	5.1%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제품별 가격변동 현황(서울, 경기 지역 중심)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등락률
즉석밥	CJ제일제당	햇반	210g 환산	1,761	1,714	-2.7%
	오뚜기	오뚜기밥 흰밥	210g 환산	1,403	1,425	1.5%
생수	광동제약	제주 삼다수	페트2L	1,234	1,256	1.8%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	페트2L	831	845	1.7%
오렌지주스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시그니처 오렌지	1.5L	-	4,502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오렌지	1.5L	4,314	4,441	3.0%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페트1.5L	3,516	3,483	-0.9%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페트1.5L	2,612	2,660	1.8%
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페트1.5L	2,985	2,949	-1.2%
소주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360ml	1,484	1,491	0.4%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360ml	1,482	1,490	0.5%
맥주	오비맥주	Cass 후레쉬	캔355ml	1,747	1,922	10.1%
	하이트진로	Hite	캔355ml	1,757	1,904	8.4%
커피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180개입	30,759	33,575	9.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80개입	27,806	31,021	11.6%
분유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3단계	캔800g	24,554	24,925	1.5%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XO 3단계	캔800g	34,336	34,678	1.0%
시리얼	농심켈로그	스페셜K	480g	8,417	8,739	3.8%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	600g	6,155	6,441	4.6%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600g	6,276	6,377	1.6%
어묵	CJ씨푸드	삼호 부산어묵 골드	300g	2,797	2,741	-2.0%
	사조대림	대림선어묵 부산어묵 마당놀이	300g	2,642	2,673	1.2%
맛살	사조대림	게맛살 큰잔치	300g	2,837	3,007	6.0%
달걀	-	대란 1판	한판(30개)	7,568	8,151	7.7%
두부	풀무원	특등급 국산콩 두부(부침용)	300g	3,993	3,706	-7.2%
	CJ제일제당	행복한콩 국산콩 100% 두부 (부침용)	300g	3,250	3,047	-6.2%
	CJ제일제당	행복한콩 단단한 부침용 두부	300g	1,464	1,406	-4.0%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제품별 가격변동 현황(서울, 경기 지역 중심)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등락률
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종이팩1L	3,148	3,155	0.2%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	종이팩1L 환산	3,462	3,253	-6.1%
	매일유업	매일우유 오리지널	종이팩1L 환산	3,469	3,333	-3.9%
아이스크림	빙그레	투게더 바닐라맛	900ml	6,824	6,968	2.1%
	롯데제과	월드콘	160ml	1,350	1,417	5.0%
	빙그레	메로나	80ml 환산	744	681	-8.4%
냉동만두	CJ제일제당	비비고왕교자	1,000g	10,287	10,699	4.0%
	해태제과	얇은피 고향만두	1,000g	10,112	10,069	-0.4%
	동원F&B	개성왕만두	1,000g	9,684	10,211	5.4%
두루마리화장지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데코&소프트 3겹	35m*24롤	27,642	28,636	3.6%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 화장지 순수프리미엄 3겹	35m*24롤	21,269	21,690	2.0%
기저귀	유한킴벌리	하기사 매직팬티 컴포트 기저귀 4단계, 여아용/남아용	40개입	28,970	29,885	3.2%
생리대	유한킴벌리	화이트 슈퍼흡수 중형	18개입	7,055	7,090	0.5%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오리지널 울트라슬림(날개중형)	18개입	7,003	7,055	0.7%
	LG유니참	소피 바디피트 블록 맞춤 울트라 중형	18개입	5,587	5,625	0.7%
세탁세제	애경산업	스파크 리필	3kg	7,473	7,691	2.9%
	CJ라이온	비트 리필	3kg	9,489	9,612	1.3%
	LG생활건강	테크 리필(테크 4대 얼룩 강력제거 진드기 사체 배설물 99.9% 제거)	3kg	11,454	11,754	2.6%
	헨켈홈케어코리아	퍼실파워젤(액체,드럼/일반 겸용)	2.7L	25,977	24,871	-4.3%
샴푸	아모레퍼시픽	러 함빛 (극손상&영양샴푸)	550ml 환산	14,594	13,021	-10.8%
	LG생활건강	케라시스 러블리 데이지 퍼퓸 샴푸	600ml	7,170	7,271	1.4%
	애경산업	엘라스틴 콜라겐 볼륨 탄력케어 10X 샴푸	680ml	8,561	8,965	4.7%
참치캔	동원f&b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00g	2,449	2,470	0.9%
	사조	사조 참치 살코기 안심따개	100g	2,161	2,146	-0.7%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서울, 경기 지역 중심)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	동락률
과자(파이)	468g 환산	4,529	4,553	0.5%
과자(스낵)	90g	1,297	1,313	1.2%
껌	원통90g 환산	4,464	4,463	0.0%
밀가루	1kg 환산	2,026	2,023	-0.2%
설탕	1kg 환산	2,820	2,805	-0.5%
고추장	1kg	17,560	18,716	6.6%
된장	1kg	8,554	9,101	6.4%
쌈장	170g 환산	1,636	1,753	7.1%
식용유	1.8L 환산	7,961	8,001	0.5%
참기름	320ml	9,832	9,786	-0.5%
간장	1.7L 환산	15,147	16,340	7.9%
케찹	500g	3,466	3,485	0.5%
마요네즈	500g	6,152	6,147	-0.1%
맛김	5g*9봉 환산	5,370	5,493	2.3%
라면	봉지120g	802	811	1.0%
햄	340g	6,666	6,548	-1.8%
즉석밥	210g 환산	1,592	1,569	-1.4%
생수	2L	1,037	1,051	1.3%
오렌지주스	1.5L 환산	4,495	4,472	-0.5%
콜라	1.5L 만	3,064	3,071	0.2%
사이다	1.5L 만	3,012	2,949	-2.1%
소주	360ml	1,484	1,490	0.4%
맥주	캔355ml	1,897	1,913	0.9%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32,262	32,298	0.1%
분유	800g	25,938	24,925	-3.9%
시리얼	600g	6,345	6,409	1.0%
어묵	300g	2,731	2,707	-0.9%
맛살	300g	3,043	3,007	-1.2%
달걀	1판(30개)	8,134	8,151	0.2%
두부	300g 환산	3,571	3,377	-5.4%
우유	1L	3,365	3,247	-3.5%
아이스크림	160ml	1,418	1,390	-1.9%
냉동만두	1,000g	10,261	10,326	0.6%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5,316	25,163	-0.6%
기저귀	40개입	29,341	29,885	1.9%
생리대	18개입	6,551	6,590	0.6%
세탁세제	3kg만	10,001	9,686	-3.2%
샴푸	500ml	8,386	8,163	-2.7%
참치	100g 환산	2,274	2,308	1.5%

□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구분	25년 1분기				26년 1분기				증감률
	1월	2월	3월	평균	1월	2월	3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115.71	116.08	116.29	116.03	118.03	118.4	118.8	118.41	2.05%

출처: 국가데이터처